

고흥군, 10GW 재생에너지 발판 ‘에너지 연금’ 선도

해상풍력·태양광·여수 송전선로 포함
정부 목표치 10% 달하는 메카 부상
16개 읍·면 설명회…‘주민조합’ 결성
대타협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주력
2030년께 전 군민 배당 현실화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 수익을 전 군민에게 매월 배당하는 군민 에너지 연금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최대 난제인 전력망 확보를 위해 군민 대타협에 시동을 걸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권역에서 실행 가능한 재생에너지 개발 총량은 10GW에 달한다.

정부와 군이 주도하는 해상풍력·태양광 5GW에, 고흥 내륙을 관통해야 하는 여수권역 공공·민간 해상풍력 5GW 송전선로까지 포함한 수치다. 이는 2030년 정부 목표치(100GW)의 10%, 전남광주특별시 목표치(20GW)의 50%를 차지하는 초대형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기존 핵심 동력인 우주·드론·스마트팜에 재생에너지를 더해 ‘3+1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역 경제 지도를 전면 재편한다.

최대 관건은 막대한 전력을 실어 나를 송전선로 구축이다. 급증하는 발전량 대비 계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군은 ▲송전선로 조기 구축 ▲이익 공유 모델 개발 ▲월 60만원(4인 가구 기준) 에너지 연금 실현을 3대 목표로 군민 대타협에



고흥군은 최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모델 개발 및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군민 대통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고흥군 제공>

돌입했다.

지난 9월 상록 지점 주민들의 긍정적인 기초 여론을 확인한 군은 10월 중 16개 읍·면 설명회를 거쳐 올해 말까지 인구 50명당 1명씩 총 1천명 규모의 대표 주민조합을 결성할 계획이다.

주민조합은 송전 노선과 이익 공유 방식을 직접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작동하며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주민이 먼저 건의하는 365

kV 송전망 구축’을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주도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공공적 목표인 에너지 연금 시대로 앞당겨진다. 군은 사업 속도가 빠른 태양광 발전 단지의 이익 공유를 기점으로 오는 2029년부터 점진적 연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어 2030년께 신규 송전선로와 해상풍력 상업 운전이 본격도에 오르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배당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전력계통 포화 해소의 핵심 열쇠는 결국 ‘주민 수용성’ 확보에 있다”며 “주민이 합의한 송전선로 구축안을 정부 기본계획에 최우선 반영토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타협이 성공하면 군이 약속한 에너지 연금도 차질 없이 안정적 고흥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여수세계섬박람회, 전시·체험·관람환경 ‘업그레йд’

국제교류섬 전면 교체·이벤트 섬 신설
콘텐츠 보강…전시관별 해설사도 추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7일부터 전시·체험·관람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후반기 관람객을 맞았다.

이날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휴장일인 전날 잔디광장 경관조명 추가 설치와 그늘막 일제 점검, 전시관 텐트 냉방기 2대 냉난방기 교체, 배수로 신설 등 시설 정비를 진행했다.

재개장의 중심은 국제교류섬이다. 기존 해외 지방정부관이 전면 교체돼 미국 하와이, 쿠바 바나, 탄자니아 잔지바르, 일본 고치, 팔라우 벨



레케오크, 마셜제도 마주로, 키리바시, 가나 볼타, 예멘 소코트라, 통가, 솔로몬제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인도네시아 트렝갈렐, 도미니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사바 등 총 17개 국가·지방정부가 새로 참여한다.

1차 전시가 갈라파고스·산토리니 등 문화유

산과 관광으로 알려진 섬들을 소개했다면, 2차 전시는 하와이의 화산 생태계와 마셜제도의 기후변화 대응, 세인트빈센트의 산호초 복원처럼 섬이 당면한 환경 과제와 답을 보여주는 섬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세계 각국의 섬과 주요 섬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는 미디어관과 인생네트·인형뽑기·세계의 섬을 잡아라’ 등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섬도 새롭게 운영된다.

참가 지역이 직접 무대에 오르는 ‘아일랜드 프렌즈데이’는 10-11일 가나 볼타를 시작으로 팔라우, 쿠바, 탄자니아, 키리바시, 일본 고치, 하와이 순으로 폐막까지 이어진다.

10일부터 매주 토요일에는 국제교류섬 컨퍼런스홀에서 섬 코디네이터가 매주 3개 섬의 이

야기와 여행 코스를 소개하는 ‘이 섬, 어때?’가 하루 6회 열린다.

전시 관람 경험도 강화된다. 주제섬·해양생태섬·문화섬·미래섬에는 전시관별 해설사를 2명씩 추가 배치하고 AI 도슨트와 드론 조종사 체험, 소원배 등 참여형 콘텐츠를 이어간다.

버스킹 공연은 총 28회로 확대하며 전시관 안내 사인과 바다 동선을 보장하고 열린무대 모니터와 누리집 팝업을 통한 행사 일정 안내도 강화한다.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여수의 섬과 바다가 가진 관광·환경적 가치를 박람회 주요 콘텐츠와 연계해 홍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가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장흥군, 유치면 육상풍력단지 조성 속도
2차 민관협의회 개최 계획안 심의·의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유치면 대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49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 집적화단지 조성 계획안 심의·의결을 위한 제2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협의회에서는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발전 사업 이익 공유,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 등 풍력발전 사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했다.

군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사업 성공의 핵심은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이라며 “민관협의회를 지속 운영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홍=노혜룡 기자



구례군은 최근 지리산호수 일원에서 39개 국가 1천165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국제철인3종경기 ‘2026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는 수영(3.8km), 사이클(180km), 마라톤(42.2km) 등 총 226km 풀코스를 17시간 제한 시간 내에 통과하는 극한 레이스다. 사진은 출발 전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구례군 제공>

‘구레 아이언맨 코리아’ 999명 완주

지리산호수 일원 226km 철인3종경기
39개 국가 1천여명 참가 극한레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7일 “최근 지리산호수 일원에서 개최된 국제철인3종경기

‘2026 아이언맨 구레 코리아’가 39개 국가 철인들의 극한 레이스와 민·관 합동 지원 속에 999명 완주자를 배출하며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국내의 선수 1천165명이 참가했으며 자원봉사자 1천500명과 구레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이 현장에 투입돼 안전 관

리를 전담했다.

선수들은 지리산호수 수영(3.8km)을 시작으로 사이클(180km)과 마라톤(42.2km) 등 총 226km 풀코스를 17시간 제한 시간 내에 통과하는 경주를 펼쳤다. 경기 결과, 남자부는 중국 우펑항 선수가 8시간46분, 여자부는 오스트리아 조엘리 이네스 선수가 9시간29분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각각 남녀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 5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상위권 완주자에게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2027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 34장이 수여됐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자연 속에서 한계에 도전한 선수들과 이룬 시간 현장을 지켜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 생태 자원과 스포츠를 연계해 전 세계인이 찾는 스포츠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종 기자

보성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완료

2027-2030년 9대 전략 53개 사업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은 7일 “최근 저출생·고령화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 수립을 완료하고 전남광주특별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

계획은 ‘기본이 든든한 복지보성’을 비전으로 4년간의 복지이정표를 제시했다. 사회보장사업과 발전분야를 아우르는 2개 전략체계 아래 9대 전략과 53개 세부 사업으로 뼈대를 세웠다.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핵심 사회보장사업은 생활안전망 강화, 생애주기 통합돌봄, 일자리 자립 지원, 신체·정신 건강 안심, 배움 문화 확대 등 5대 전략을 연계해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군은 지난 6월부터 민·관 협력과 연구용역, 전문가 심층 면접(FGI), 온·오프라인 주민 조사를 거치며 현장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보성군의회 보고 등 법정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53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곡성군, 재생에너지 주민 소득 창출 박차

주민참여제도 설명회…수익구조 소개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 유의 사항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은 7일 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발전사업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참여 제도를 알리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 및 주민참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1부에서는 이순형 동산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동향과 전력 계통 기본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단위에서 사전 유의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안내

했다.

2부에서는 이병훈 ㈜루트에너지 팀장이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절차와 구체적인 수익 구조를 소개했다.

국내의 성공적인 이익 공유 사례를 바탕으로 곡성군에 최적화된 ‘군민펀드 모델’의 주요 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군은 햇빛·바람소득마을 등 주민참여형 발전 사업을 준비 중인 마을들이 설명회를 통해 체계적인 사전 검토와 구체적인 참여 방식을 완벽히 숙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의 풍부한 햇빛과 바람 등 자연자원이 주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곡성=김영필 기자

광양시, AI 전환 참여업체 모집
14일까지 중소·중견기업 4개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7일 “지역 제조기업 체질 개선과 인공지능(AI) 전환 촉진을 위해 2026년 광양 제조산업 AI융합 실증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AI팩토리)의 일환으로 광양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이 수행을 맡아 지역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생산성·품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4개 사로 선정 시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규모의 AI 융합 기술 적용을 지원받는다.

주요 지원 분야는 ▲현장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하는 ‘디지털트윈’ ▲생산·설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MES(제조실행시스템)·IoT(사물인터넷)’ ▲공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S PC(통계적 공정관리)’ 및 AI 기반 품질관리’ 등이다.

수행기관이 기업별 공정과 애로사항을 정밀 진단해 해당 현장에 가장 적합한 AI 기술을 맞춤형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14일까지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실태 점검과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기업이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또는 연구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성학 기자